

다도해의 보석 섬

①9 해남군 송지면 어불도



해남군 송지면 어불도(於佛島). 섬 주민들은 배로 5분 거리인 물보다 바다에 기대 물이 귀하고 척박한 땅에서 억척스럽게 생활해왔다.<위> 한 주민이 김 모종을 바다에 옮겨 놓기 전 자신의 배 위에서 스티로폼 부표와 그물망을 손질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식량보다 물이 귀한 땅끝 다도해 관문

물로 등교하는 아이들이 섬을 빠져나오는 오전 8시 해남군 송지면 어불도(於佛島) 앞 바다는 분주했다. 선착장 앞은 주민들이 쓰다 놓은 '스티로폼 부표'와 '그물망' 등으로 가득했다.

김 모종을 '그물 김밭'에 옮긴 뒤 바다에 놓는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주민들은 새벽 6시부터 어선 시동을 켜고 급박을 들먹 안은 바다로 나가 숨 돌릴 틈 없이 손을 놀린다.

어불도(면적 0.663km)는 섬 모양이 부처 형상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선착장에서 700m 떨어진 섬이다. 해남군에서 임차한 9.77t짜리 배가 마을 주민 요구에 맞춰 운항하는데, 배를 타는 시간도 고작 5분 정도여서 다른 섬에 비해 물과의 거리가 가깝다.

그래도 예전부터 물이 귀한 탓에 섬 사람들은 "결코 가까운 거리는 아니다"고 입을 모은다.

어불도 박지호(68) 이장은 "농사 지을 땅이 마땅치 않은데다, 물이 귀해 전수담에 물 대기도 쉽지 않다"면서 "20년 전만 해도 주민들은 물에 땅을 빌려 배를 타고 '출퇴근'하다시피 하며 농사를 짓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나마 '식수'는 부족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20년 전 김 공장이 20여개에 이를 정도로 넘쳐나고 이들 공장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식량보다 귀한 물'로 바뀌었다고 한다. 집집마다 물통 수십 개를 싣고 물으러 나가는가 하면 빨래라도 하려면 먼 친척집을 찾아가기도 했다는 것이다. 섬 주민들이 척박한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바다에 기대고 산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그래도 한때 '풍요롭던 시절'을 회상하면 주민들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1970년도만 해도 어불도 앞 바다는 천혜의 '삼치'어장이었다. 해외로 수출할 게 손으로 꼽던 시절, 이 섬 삼치 어획량은 전국 경제 동향에 빠지지 않을 정도였다. 일본으로 전량 수출되면서 마을 앞바다는 수십 척의 삼치잡이 배들이 물러들었고 밤, 낮을 가

리지 않고 흥청거렸다.

주민 190여명 대부분 김양식으로 생계

1970년대 흥청대던 천혜의 삼치 어장

물에서 5분 거리... "섬 관광지 개발 기대"

삼치잡이를 위해 한 배에 달라붙은 인원만 대략 8~9명. 그러다보니 선착장 인근에 파다파다 붙어살던 작은 섬 마을은 한 때 300명이 넘는 정도로 북적였고 아이들 울음소리도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도 섬 전체가 감성돔·민어 등이 올라오는 낚시 포인트여서 물에서 찾는 낚시꾼들이 줄을 잇는다.

그런 섬은 '오일 쇼크'로 생활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 동력선을 움직이지 못해 생계를 꾸리기 힘들어지자 젊은층은 하나둘 섬을 빠져나갔다.

주민들이 억척스럽게 일궈낸 밭은 휴경지로 바뀌는가 하면, 고구마·보리 대신 일손이 덜 드는 마늘·고추 가 자리를 메웠다.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도 196명으로, 초등학교는 고작 4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65세 이상(50명)이 50세 이하(92명) 주민들이 65세 이상(50명)보다 많은 데는 김·전복 양식이 각광을 받으면서다.

특히 김 양식은 섬내 60가구 이상이 매달리면서, 적게는 3000만원~ 많게는 2억 이상 올리는 주민들의 주업으로 바뀌었다. 삼치잡이로 풍요로웠던 시절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한 해 밭을 일궈 얻은 소득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다. 이따때면 섬 주민들은 김 종묘를 길이 110m로 만든 '그물 김밭'에 붙여 바다에 넣어놓는 시기다. 하루종일 바다에서 쉴 틈이 없다.

30년 넘게 섬에 살았다는 김미화(42)씨도 물에서 온 외지인들에게 "무슨 일로 왔느냐"며 반기면서도 김 종묘를 바다에 옮겨 심기 위해 스티로폼 부표를 단장하느라 손놀림이 쉴 새 없었다. 다른 주민들에 비해 김 종묘 이식 시기가 늦었다고 한다.

주민들은 물에 내보낸 자식들을 가르치는 밀천인 탓에 새벽 찬 바람을 맞으며 바다로 나가 김 양식에 매달린다. 일정한 시간에 맞춰 김밭을 뒤집어 '일광욕'을 시키는가 하면, 이물질이 끼었는지, 생육 상태는 적당한지 온갖 정성을 쏟아붓는다.

박 이장은 "매년 9월 말~10월 말은 김 종묘를 바다에 '이식'하는 시기"라며 "주민 대다수가 김 양식에 매달리는데다,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탓에 새벽 6시가 넘으면 동네 사람 얼굴 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여느 섬이나 물과 격리된 탓에 부족한 것, 바라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곳 주민들은 방파제 건설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천혜의 어장을 갖추고 있지만 어란리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탓에 태풍이라도 불면 섬 주민들은 한바탕 난리를 치른다고 한다.

주민들이 전남도와 해남군에 '방파제 건설'을 수십년간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절름 공사로 그치면서 언제 완공될지 기약이 없다.

섬 주민들은 생업에 바쁜 와중에도 섬 개발 열풍을 타고 불거리 확충에도 나서고 있다. 예를 들면 완만한 섬 주변에 야생화 등을 심고 해수욕장이라고 하는 썩스럽지만 고운 모래로 덮인 해변을 정비하면 관광객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바다에 가까우면서도 물에 가까운 섬이라는 점을 활용, 관광객들이 가고 싶은 섬으로 만들면 섬바깥 사람들과 함께 풍요롭게 어울려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 이곳 어불도 주민들의 바람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Angelo
안젤로는 이태리어로 천사입니다.

이태리가구 전문점
100% MADE IN ITALY

안젤로 오픈기념 20% OFF 11월 30일 까지

광주광역시 서구 307-1 화정동사거리 구, 푸조전시장
062-382-0022, 381-3388



명품시계 전남/북 총판
A/S는 유명백화점 갤러리어클락 매장과 공유됩니다.

갤러리어클락 광주점
TEL. 062 233 2251
광주 동구 충장로2가 25-1번지 (학생회관 후문 다이소 옆)

* 본 매장은 정품만을 취급합니다.
* 명품시계 취급점 모집

CITIZEN, TechnoMarine, FENDI, TIMEX, Salvatore Ferragamo, BOSS, Paul Smith WATCH, CELINE, COACH, NIXON, AIGNER, D&G